韓國心理學會誌 : 産業 및 組織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90. Vol. 3, NO. 1. 72－97

韓國의 地域偏見에 대한 社會心理學的 分析

崔 祥 鎭 · 宋 英 鎬

(中央大學校 心理學科)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편견에 대한 기존의 두 부류의 연구, 즉 사회학 분야의 사회구조적 접근과 심리학 분야의 고정관념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및 보완적 접근으로 사회심리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편견의 조성에 기여하는 비현시적 사회심리적 과정을 사회적 상황과 사건에 연계시켜 예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역편견 조성 및 강화과정을 사회심리학적 이론들을 중심으로 명제화하여 제시하였다.

가. 緖 論

최근 우리사회에서 學界와 言論은 물론 일반 사회인들까지도 우리 사회의 諸般 葛藤(예컨대, 地域葛藤, 勞使葛藤, 貧富葛藤, 理念葛藤, 大學葛藤 등)問題가 그 어느 때보다 深化되었을 뿐 아니라, 이에 隨伴되는 또는 될지도 모를 社會解體性 副作用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學問的 視角이나 言論의 立場에서 갈등의 문제를 整理하거나 接近함에 있어 발견되는 問題點의 하나는, 그 發生의 기제면에서 同一한 性格으로 把握하기 어려운, 즉 서로 같지 아니한 發生構造的 特性을 지닌 여러가지 葛藤을 "葛藤一般"이라는 外顯現象的 視角에서 포괄적으로 範疇化하는 問題와 관련된 것이다.

勞使葛藤, 貧富葛藤, 理念葛藤, 大學內葛藤 등은 그 갈등의 性格面에서 葛藤의 素因이 構造的으로 內在해 있다는(예컨대, 利害關係問題, 努力關係問題 또는 信念體系問題등에서의 相互相反性 때문에)점에서 이유있는 갈등이며, 葛藤構造內在的 現實葛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아주 심각하게 問題化되고 있는 地域葛藤은 갈등의 소인 또는 발생기제면에서 前者와 그 性格이 다르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지역갈등의 경우

를 보면 利害當事者가 不分明할 뿐 아니라, 具體的으로 어떤 면에서 葛藤集團間에 利害가 相衝되며, 그럴 수밖에 없다는 認識의 論據가 不分明하거나 微弱하다.

領·湖南間의 葛藤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이 두 지역 주민간의 利害關係葛藤이 과연 勞使의 利害關係처럼 現實的으로 明白하며, 構造的으로 必然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地域開發과 人材登用面에서 湖南에 대한 差別的 不利益이 있었다(고홍화, 1989참조)는 등의 具體的 要因이 領·湖南 葛藤의 素因이 되어왔다는 주장도 있으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客觀的 差別現狀이 곧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말하는 地域葛藤의 一次的 素因이며, 原因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現狀은 地域感情과 連繫된 附隨的 結果이거나 갈등 그 자체로 把握하는 것이 보다 常識的 理解에 가깝다 하겠다.

만일 領·湖南地域差別이 영·호남 갈등의 一次的이며 直接的 原因이라면, 지역차별을 없앨 때 이 地域間 葛藤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호남 갈등은 地域差別을 없앤다고 쉽게 解消될 性質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湖南人에 대한 實際的 差別이 있었다면, 그러한 現狀을 誘導한 原因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原因을 具體的으로 파악할 때 地域葛藤의 원인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其實 領·湖南의 一般住民 自身들(政治人이 아닌)의 立場에서는 利害關係나 努力關係에서 두 지역민들간에 葛藤의 素因이나 理由를 발견하기 힘들다. 領·湖南의 일반보통사람들의 대부분은 서로 다른지역에서 자기 지역인끼리 살고 있다는 점에서 個人的 水準에서 相互間에 利害關係上의 마찰을 經驗할 기회조차 갖기 힘든 것이 보통이다. 오히려 葛藤의 相對者는 自己地域內人이 되는 것이 當然하다. 이 점에서 지역갈등은 이해관계상에서 항상 예민하게 충돌하기 쉬운 勞使關係나 種族, 宗敎 또는 信念이나 價値觀등에서의 相異性이나 相互排他性때문에 생겨나는 人種葛藤, 宗敎葛藤, 이데올로기나 政治集團間의 葛藤과 그 性格을 달리한다고 하겠다.

또한 領·湖南住民이 서로 相對地域人에 대해 固定觀念이나 偏見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생각을 正當化시킬 수 있는 認知的 根據나 合理的 理由도 不充分하다고 볼 수 있다. 즉 相對住民에 대해, 어떠어떠해서 相對가 좋다 또는 나쁘다는 그럴듯한 論據를 提示할 만한 客觀的 證據 또는 正當化의 論理조차 갖지못한 상태에서, "그저 싫다" 또는 "왠지 좋지않다"는 식의 感情的 不平感이나 敵對感이 현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勞使葛藤에서와 같이 갈등의 소인이 分明하고 具體的인 狀況에서의 葛藤을 實體的 葛藤이라 할 때, 地域葛藤은 적어도 當事者인 一般住民의 立場에서 볼 때, 갈등의 소인이 不分明한 상태에서 葛藤의 素因과 直接的 關聯이 없는 또는 적은 제3의 소인이나 과정에 의해 生成-助長된 非實際的 葛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非實際的 葛藤은 흔히 合理性을 缺한 感情이나 偏見에 의해 造成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地域葛藤은 地域感情이나 地域偏見의 側面에서의 接近될 수 있는 心理的인 問題特性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地域感情이나 地域偏見의 경우와 같이, 無根한 誤謬認知要素나 非合理的

感情이 介入된 偏見現狀은 偏見所有의 當事者 自身들이 스스로 自覺하고 認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微妙하고 복잡한 社會心理的 課程을 통해 造成, 維持, 變化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內-外集團에 대한 硏究들은 集團間에 實際的 理解葛藤의 소인이 없는 狀況에서도 外集團에 대한 敵對感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實證的으로 보여주고 있다(Tajfel, 1981, 1982; Tajfel & Turner, 1979).

또한 두 집단간에 존재하는 相異性 그 자체가 葛藤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硏究에서는, 두 집단간에 存在하는 상이성의 內容이 무엇이든 간에 즉, 그 내용이 갈등과 전연 無關한 性質의 경우에도, 상이성은 競爭心理를 誘發하며(Tropper, 1972), 攻擊性을 誘引하는 欲求挫折의 誘發要因으로 作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Feierabend & Feierabend, 1966). 뿐만 아니라 極小한 차이만으로도 相對集團에 대한 偏見과 差別行爲가 나타날 수도 있다(Brewer, 1979; Tajfel & Turner, 1979).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社會的 認知課程은 자신들이 가진 固定觀念을 支持할 수 있는 證據가 不分明한 狀況에서도 이를 갖게하는 膽弱性을 나타낸다.

위의 論議를 綜合的으로 檢討해 보면, 領·湖南間의 葛藤으로 表出化된 우리나라의 地域葛藤은; 첫째, 적어도 一般住民의 立場에서는 個人間이나 集團間의 利害關係의 相衝에서 緣由된 實在的 葛藤의 性格이 매우 약하고, 둘째, 적어도 일반주민의 입장에서는 相對住民에 대한 否定的 判斷의 認知的 根據를 合理的으로 갖지 못하며, 비록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葛藤의 原因이라기 보다는 葛藤과 連繫된 現狀이거나, 갈등의 존재에 대한 合意的 認知에 불과하다 하겠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葛藤의 根據가 模糊한 狀況에서 否定的 感情이 介入된 "理由없는 敵對感"의 性格을 짙게 풍기고 있다는 점이다.

對人間이나 集團間의 葛藤狀況에서, 問題된 갈등의 客觀的 原因에 대해 서로가 共同으로 문제시하고 合意的 認識을 갖게될 때, 갈등의 해결을 위한 방향과 접근은 보다 명백해 질 수 있다. 그러나 葛藤源이 不分明하며, 갈등의 원인과 無關한 加外的 變因들이 複雜하게 얽히어서 誘發되는 根據模糊의 葛藤狀況에서는 그 解消를 위한 方向과 戰略的 手段을 찾기 어려우며, 결국 그 갈등은 社會의 統制밖에서 스스로 生命力을 維持시키는 自保性을 갖기 쉽다.

우리나라의 地域感情과 地域葛藤이 바로 이러한 非實際的 葛藤의 性格을 띠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비실제적 갈등이 어떤 과정을 통해 生成, 維持되는 가를 밝히는 일은 이 問題에 대한 原因發生學的 理解에 寄與할 뿐 아니라, 이의 解消에 대한 實際的 示唆點을 提供해 줄 수 있을 것이다.

本 稿에서는 地域葛藤의 問題를 地域感情의 側面에서 捕捉하여, 이를 社會心理學的 視角에서 照明해 보고자 한다. 즉 현재 나타나고 있는 非實際的 地域葛藤과 感情의 問題를 社會心理學의 理論的 틀 속에서 分析해 봄으로서, 그러한 현상의 發生機制와 課程을 外挿的으로 推論·說明해 보는데 본 고의 目的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集團葛藤과 偏見에 直·間接的으로 關聯될 수 있는 社會心理學的 理論들을 먼저 要約 소개해 보기로 한다.

나. 葛藤과 偏見에 關係된 社會心理學的 理論

이 問題와 관련된 社會心理學的 理論은 크게 다음과 같이 5개의 部類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社會的 葛藤이 相對集團에 대해 가지고 있는 否定的 態度가 信念에서 비롯된다는 偏見(여기서는 地域偏見)的 接近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앞의 偏見的 接近視角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도, 그 强調點을 認知課程의 側面에 두고 있는 社會範疇化的 接近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갈등과 관련된 固定觀念이나 偏見이 集團에 대한 認知的 範疇化(內-外集團의 區分)에 의해 나타나는 結果物로 추정하며, 따라서 이 접근에서 주요한 說明槪念은 範疇化(Categorization)와 社會的 同一視(Social indentification)이다.

세번째로는 集團間 葛藤이 利害의 相衝的 關係에서 비롯된다는 立場의 實際葛藤的 接近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說明槪念은 競爭(competition)이다. 네번째로는 집단간의 갈등을 개인이나 집단의 欲求挫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接近으로, 여기서는 욕구좌절이 相對集團에 대한 敵對感을 誘發하여 集團間 葛藤이 생긴다는 立場을 취한다. 끝으로 본 고의 주제인 지역갈등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直接的 關聯性이 적으나, 어떤 性格特性을 가진 사람이 偏見을 더 쉽게 갖게되는가에 焦點을 둔 個人差的 接近이다. 여기서 가장 古典的 理論으로 받아들여지며, 동시에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이론은 權威主義的 性格理論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의 다섯가지 範疇의 接近을 차례로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社會的 葛藤에 대한 偏見的 接近

대부분의 社會的 葛藤關係에는 偏見이 介入되어 있으며, 편견은 흔히 固定觀念이라는 認知的 要素를 포함한다. 여기서 편견은 制限된 그리고 不充分한 根據에 기초한 否定的, 先入見的 接近을 指稱하며, 따라서 感情的 色調를 띄는 것이 보통이다. 偏見은 特定 個人 또는 集團이 他人이나 他集團에 대해 가지고 있는 評價次元의 感情, 認知 및 行爲要素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態度의 한 형태로 把握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관념과 편견은 여타의 태도와 같이 社會化 課程을 통해 學習되며, 일단 습득된 고정관념과 편견은 持續되며, 변화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固定觀念과 偏見은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또는 客觀的 根據가 없거나, 희박한 狀況에서도 形成되며, 이러한 偏見形成의 課程에는 복잡한 社會心理的 課程과 原理가 介入된다. 즉 內-外集團이 區分되고 동시에 相對集團에 상이점이 知覺되는 상황에서 편견은 形成될 수 있다(Byrne & Wong, 1962; Brewer, 1979; Tajfel & Turner, 1979 등). 또한 集團間 競爭이 意識되는 狀況에서, 客觀的 刺戟情報가 애매한 상황에서 偏見은 形成, 增幅되며(Tajfel & Wilker, 1963), 이때 형성된 편견과 고정관념은 極端化, 過剩 單純化, 感情化의 傾向을 띠게 된다.

2. 社會的 範疇化 接近

사람들은 社會的 現狀을 範疇化해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범주화의 한 형태는 內集團과 外集團의 區分이다. 일단 內-外集團을 구분하게 되면, 자기들끼리는 보다 비슷하게 知覺하며, 外集團 構成員에 대해서는 自己集團과는 사실보다 더 다르게, 동시에 外集團 構成員間에는 實際보다 더 類似性이 있는 것으로 知覺하는 傾向을 보인다(Tajfel & Wilker, 1963).

또한 자신이 속한 외집단은 바람직한 視角에서(Oakes & Turner, 1980), 外集團은 否定的 視角에서 判斷評價하는 傾向을 보인다(Meindle & Lerner, 1985). 이러한 내-외집단에 대한 偏頗傾向은 偏見이나 固定觀念의 根據가 전혀 될 수 없는 무의미한 端緖나 事件에 의해 集團이 區分되는 경우에도(예컨대, 동전을 던져서 두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와 같은) 나타난다(Tajfel et al., 1971 ; Billig & Tajfel, 1973).

內外集團的 接近과 軌를 같이하는 이론의 하나는 社會的 同一視理論(Tajfel, 1981, 1982)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自己自身을 어떤 집단에 속한 것으로 知覺하느냐에 따라 特定集團에 대한 同一視가 이루어진다. 동일시가 이루어지면 그 集團의 規範과 判斷에 同調하며, 自己集團은 높게, 반대로 他集團은 낮게 評價하는 傾向을 나타내며, 그 결과로 자신의 自尊心을 높이게 된다. 또한 사람의 행동이 個人으로 行動할 때와 集團의 一員으로 行動할 때에 서로 다르며, 따라서 개인이 처한 상황속에서 어떤 自我(즉 個人的 對 集團的 自我)가 보다 顯示的으로 作動되느냐에 따라 동일한 개인의 행동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이 이론에서는 主張한다.

3. 實際 葛藤的 接近

이 접근에 따르면, 社會的 葛藤은 무엇보다도 集團間에 葛藤을 일으키는 直接的 素地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며, 보다 具體的으로는 集團間 利害關係에서 相衝이 있을 때, 葛藤, 競爭, 敵對心이 일어날 可能性이 커진다는 것이다(Campbell, 1965). 이러한 實際葛藤的 接近脈絡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분야는 競爭에 관한 硏究(예컨대, Sherif, 1966)이다.

競爭狀況은 두 집단이 共同으로 쟁취할 수 없는 目標 즉, 兩立될 수 없는 目標가 있을 때 發生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集團間 區分이 顯著化되며, 相對集團에 대한 抵抗感 내지 敵對感이 形成되고, 偏見과 固定觀念이 생기며 葛藤을 誘發한다는 것이다. 특히 爭取하려는 資源이 制限되어 있거나(Brewer, 1979), 경쟁의 과정에서 欲求挫折이 클 때 편견과 적대감이 커진다(Sherif & Sherif, 1979). 또한 "Prisoner's Dilemma"상황에서 두 당사자들은 공히 協同보다는 競爭쪽을 택하는 傾向이 높으며(Luce & Reiffa, 1957), 集團事態에서 그 傾向은 더욱 두드러지며, 敵對感과 偏見도 더욱 높게 나타난다(McCallum, et al., 1985).

그러나 個人間 또는 集團間 딜레마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協同으로 나올 때 다른 한쪽이 협동의 代案을 택할 可能性은 커지며, 반대로 競爭으로 나올 때 경쟁으로 應酬할 可能性은 크다

(Rubin & Brown, 1975).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이 협동을 無條件的으로 택할 때, 다른 한쪽이 이를 이용해 競爭方向의 應酬를 할 수도 있다(Shure, Meeker, & Hansford, 1965).

4. 欲求挫折-攻擊性 接近

欲求挫折은 攻擊性을 낳는 傾向을 보이며(Dollard, et al., 1939), 攻擊的 偏見(Hovland & Sears, 1940; Miller & Bugelski, 1948; Hepworth & West, 1988)을 잉태시키는데 寄與한다. 특히 욕구좌절의 故意性에 의해 誘發되었을 때 비고의성일 때 보다(Baron, 1977; Kulik & Brown, 1979), 그리고 욕구좌절의 强度가 강할 때 약할 때보다(Baron, 1977) 攻擊性이 誘發될 可能性이 더 커진다.

欲求挫折이 攻擊行動으로 表出될 可能性은 분노가 클수록 커지며(Berkwitz, 1978; 1988), 攻擊反應을 이미 學習해서 가지고 있을 때(Bandura, 1973; Zilman, 1988), 또한 攻擊行動이 補償을 받았을 때(Buss, 1971; Gaebelein, 1973)커진다. 또한 學習을 통해 攻擊(또는 暴力)과 연합된 象徵刺戟(Symbols)은 특정한 狀況條件에서 공격행위의 誘發端緖로 作用한다. 集合的 葛藤은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挫折誘發刺戟(또는 象徵)에 노출될 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Berkowitz, 1962; 1969).

欲求挫折은 個人水準의 攻擊뿐 아니라, 불란서 혁명이나 4·19혁명과 같은 社會的 攻擊(Societal aggression)을 誘發한다. 사회적 욕구좌절은 앞으로 改善될 수 있다는 肯定的 期待가 큰 반면에 현실적으로 欲求充足條件이 변화될 수록 커진다(Davies, 1972, p. 68). 즉 期待와 現實의 隔差로 표현되는 相對的 剝奪感(relative deprivation)이 클수록 社會的 欲求挫折과 社會的 暴力의 可能性은 커진다(Davies, 1972; Feierabend & Feierabend, 1972).

여기서 도출될 수 있는 命題 하나는, 剝奪(物質的 富, 社會的 地位, 또는 利害關係側面에서의)이 改善의 可能性을 보일 때(약간 개선되었을 때)에, 剝奪이 그대로 變化없이 持續되는 경우(즉 改善의 可能性이 없는 경우)보다 社會的 欲求挫折의 가능성은 커진다. 따라서 欲求挫折條件에서의 약간의 改善은 오히려 社會的 欲求挫折을 增加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5. 個人差的 接近

偏見과 集團葛藤에 관련된 個人의 動機的 및 認知的 過程에서 個人間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연구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사람들은 欲求挫折 刺戟에 대한 反應强度에서 차이가 있으며(Himmelweit, 1950), 사람들은 사용하는 範疇化體系에 있어서도 개인간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Bem, 1981).

偏見이나 集團葛藤과 관련해서 個人差의 問題를 가장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反猶太人主義와 自民族中心主義의 理念과 態度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을 프로이트의 精神力動的 視角에서 연구한 權威主義的 性格硏究(Adorno, et al., 1950)이다. 권위주의적 성격(範疇的이며 固定觀念的 思考를 하고, 過去 因習에의 固着傾向이 있고 攻擊性과 處罰志向性이 높은 성격을 지칭함)

의 소유자는 그렇지않은 사람들보다 少數人種에 대해 일관성있게 더 많은 偏見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權威主義的 性格은 養育過程에서 父母의 사랑결여 및 體罰使用, 子女에 대해 君臨하는 父母의 자세와 자녀에 대한 過剩期待등과 같은 養育方式에서 形成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에서 社會的 葛藤의 원인이나 기제를 이해하는데 관련될 수 있는 社會心理學的 理論들을 要約해 보았다. 물론 여기서는 요약을 편의상 이들 여러접근이나 이론들은 각기 독립적인 것처럼 個別的으로 분리시켜 다루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重複되는 特性을 構造的으로 가지고 있다. 예컨대, 偏見的 接近에서의 偏見이나 固定觀念은 範疇化와는 물론 集團競爭의 理論과 서로 中複되는 측면과 동시에 相互補完的 要素를 상호간에 지니며, 그러한 關係性이 여기서 언급된 다른 접근간에도 適用된다.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이러한 理論的 視角에서의 우리의 地域偏見과 地域感情의 問題를 分析的으로 考察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먼저 지역감정 문제에 대한 두 主流의 接近方式(크게, 巨視的 및 微視的)을 批判的으로 고찰해 보고, 다음으로 微視的 接近의 하나인 地域偏見的 研究에서 나타난 結果를 要約해 보기로 한다.

다. 地域感情에 대한 두 主流의 接近 및 이에 대한 批判

지금 우리사회에서 顯在化되고 있는 地域葛藤은 嶺南과 湖南 地域間의 葛藤이라고 볼 수 있으며(안병영, 1989, pp 286~272; 중앙일보, 1989년 1월 1일자), 그러한 갈등은 먼저 政治 및 엘리트 集團間의 葛藤에서 一般地域住民間 葛藤으로 擴大, 增幅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안병영, 1989, pp 286~272; 고홍화, 1989, p. 107). 또한 지역갈등의 문제가 심각한 社會問題로 擡頭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고홍화, 1989, p. 25 및 한국일보 1989년 1월 1일자 설문조사 결과 참고). 물론 일부의 학자들은 地域感情의 根源을 과거의 史的 事實(예컨대, 3국시대의 국가분할)속에서 찾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예컨대, 이기백, 1977; 조경근, 1987).

社會科學分野에서 지역감정의 원인을 追求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대분된다. 그 한부류는 지역감정을, 특히 領·湖南間의 地域感情을 최근의 政治, 經濟面에서의 差等構造에서 分析하는 社會構造論的 視角이고, 다른 한 부류는 地域感情의 根源을 一次的으로 地域偏見 또는 地域固定觀念의 側面에서 摸索하는 한편, 社會構造的 側面에 대해서는 그러한 偏見이나 固定觀念을 助長해주는 環境的 要因으로 간주하려는 心理構造論的 視角이다. 前者의 接近은 주로 社會學이나 政治學分野에서의 접근으로, 後者의 接近은 心理學 分野의 접근으로 特徵되기도 한다(안병영, 1988참조).

이 두가지 접근은 공히 地域感情이 발달된 굵직한 構造, 즉 前者는 社會的(政治 및 經濟 包含)構造에서, 後者는 心理的 構造(즉 固定觀念 또는 偏見과 같은)에서 地域感情의 原因을 指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감정이 生成, 變化하는 過程과 力動性보다는 이러한 감정이 나타나는 構造的 背景을 확인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靜態的 接近이라고 볼 수 있

으며, 동시에 問題理解에 대한 構造的 틀을 提示한다는 점에서 독자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構造的 分析에 따르면, 地域感情의 解消는 社會的, 心理的 構造를 바꿈으로서 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론적 시각에서는 理解하거나 說明하기 어려운, 그러면서도 문제의 이해에 매우 중요한 또 다른 側面이 있다. 즉 社會 및 個人心理의 構造가 이렇게 構成되어 있어서 지역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식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나머지 잔여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湖南에 대한 相對的 剝奪이 地域感情의 原因이 되었다면, 호남못지않게 상대적 박탈을 당한 餘他地域(예컨대, 강원도)에 대한 지역감정은 왜 湖南地域에 대한 것처럼 강하지 않으며, 또 그런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지도 않는가? 또한 대통령 선거와 같은 選擧나 政治行事가 있을 때마다 지역편견과 지역감정이 增幅되는 現狀을 놓고, 心理學的 接近의 주종인 地域固定觀念的 接近에서는 이를 어떻게 說明할 것인가?

"固定觀念"이라는 용어 그 자체가 나타내 주듯이 고정관념은 변하기 어려운 心理的 構造임을 暗示한다. 그러나 政治的 事件이나 行事에 따라 고정관념이 변할 수 있다면, 이것은 固定觀念이 아니라 可變觀念이 아닌가? 흔히 社會構造的 및 心理構造的 接近을 사용한 地域感情 및 偏見에 대한 硏究에서,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이나 지역편견을 이용해서, 感情과 偏見이 더욱 惡化되었다는 식의 설명을 한다. 만일 지역감정이나 편견이 그렇게 쉽게 操作될 수 있다면, 이러한 지역감정이나 편견의 解消도 거의 비슷하게 容易하다는 論理的 推論도 가능하다. 과연 이러한 논리적 추론이 도출될 수 있는 상위 명제는 妥當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地域固定觀念이나 偏見에 관한 연구는 고정관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제쳐두고, 고정관념이 이미 心理構造속에 있음을 前提한 狀態에서 그 고정관념의 內容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에 대한 應答에 근거해서 測定하고 있는 固定觀念이나 偏見이 과연 그들 연구에서 假定하는 바와 같이 지역감정의 원인으로서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根據는 充分한가?

혹시 이들 연구에서 測定하고 있는 固定觀念이나 偏見의 內容要素들은 그 信念의 强度면에서, 또는 그러한 요소에 關與된 感情의 强度에서 비교적 微弱한 "막연한 否定的(또는 肯定的) 意味의 感情이나 態度"(고정관념이 아닌)를 測定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크게 틀렸다고 볼 수 있을까? 원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그 본래의 의미대로 중요한 意味를 지니며, 또한 그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浮刻되게 된 것은 多數民族이 少數民族에 대해서 갖는 偏頗的 생각과 이유도 없는 否定的 態度(예컨대, 백인이 흑인에 대한 편견에서와 같이)를 설명하거나, 일정한 지역에 少數人種이 移民해와서 蔑視를 받을 때(예컨대, 미국에 이민해 온 멕시코인 또는 한민족에 대한 멸시와 같이), 또는 男性과 女性의 경우에서처럼 명백한 生物學的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身體的 社會的으로 우월한 남성이 여성을 差別할 때, 그러한 否定的 感情의 背景을 이루는 心理的 認知構造를 把握해 보려는데서 생겨난 槪念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地域感情問題가 과연 위에서 예시한 유형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範疇속에 넣을 수 있는 同一屬性을 지닌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혹시 固

定觀念이나 偏見이라는 명칭을 붙여줌으로서, 個人의 私的 心理 속에 막연히, 희미하게 존재하는 현상에, 實體性을 內包하는 象徵 즉 편견 또는 고정관념이라는 심볼을 붙임으로서 이를 事實的 實體로 認知하고, 社會的 現實로 創造하는데 혹시 寄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위에서 제기한 질문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問題意識을 배경에 두고 提起한 문제들이다. 社會構造的 接近과 心理構造的 接近은 모두 사회속에, 또는 개인의 심리구조속에 지역감정을 誘發시킬 수 밖에 없는 소인이 構造的으로 存在하고 있어서 生成되었다는 視角에 서있다. 즉, 社會的 構造 속에는 差別이, 個人의 心理構造 속에는 偏見 또는 固定觀念이 있어서 地域感情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의 脆弱點 또는 盲點은 個人 또는 集團의 直接的 利害關係, 複雜한 感情關係, 또는 地域自尊心등과 복잡히 連繫되어 궁국적으로 지역감정과 편견에 유의미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각종의 社會的 事件과 變化(예컨대, 각종선거, 광주민주화운동, 사회이데올로기의 이질시대로, 최근의 함평·영광 국회의원 보걸선거등)를 지역감정에 대한 설명의 틀 속에 적절히 反映시키지 못하거나, 소홀히 取扱하고 있는 점이다. 즉 기존의 心理構造的 接近은 狀況 또는 事態的으로 助成되고 變化되는 地域感情 및 偏見을 疎忽히 다룬다고 볼 수 있다.

本 稿에서는 바로 이러한 심리구조적 접근의 脆弱點을 어느 정도 相補할 수 있는 社會心理的 接近을 지역편견 및 감정의 문제에 適用해 보고자 한다. 사회심리적 접근의 特徵은 심리구조속에 있는 固定觀念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固定觀念과 感情이 어떠한 社會心理的 過程을 통해 形成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주 관심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편견 및 고정관념에 대한 기존의 대표적 연구의 결과를 檢討해 보고, 이와 竝行하여 이러한 고정관념 및 편견이 나타나게된 社會心理的 背景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라. 地域偏見에 대한 대표적인 心理學分野 硏究의 槪念

地域感情의 問題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될 수 있는 최초의 心理學的 硏究는 1950년에 발표된 김태호의 "八道人의 性格特性"이다. 이 연구는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八道忖評式 人性特性(예컨대, 경기도는 鏡中美人, 경상도는 松竹大節, 전라도는 風前細柳와 같은)을 기초로 하여, 각 도인의 性格特性을 氣質型(예컨대, 경기도는 多血質, 경상도는 膽汁質, 전라도는 憂鬱質), 性格類型(예컨대, 경상도는 防禦型, 전라도는 思考型, 경기도는 混合型등), 生活類型(예컨대, 경기도는 審美型, 경상도 및 전라도는 理論型등)의 次元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視角을 달리하여, 客觀的 性格特性이 아닌 知覺된 性格特性에 관심을 두는 固定觀念式 接近은 이보다 9년뒤(1959년)인 이진숙의 "八道人 性格에 관한 先入觀念"연구에서 그 효시를 찾아볼 수 있다. 이진숙은 性格特性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形容詞를 사용하여, 피험자들로 하여금 각도인의 性格을 적절히 묘사하는 性格特性 形容詞를 고르도록 하였다. 그리

고 여기서 각도별로 가장 많은 選擇을 받은 形容詞를 골라, 이를 地域偏見의 特性으로 잡았다. 이 자료를 선택적으로 참고하면, 경기도는 "경우밝음", 경상도는 "무뚝뚝함", 전라도는 "영리함"의 性格特性이 가장 많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地域人 性格에 대한 先入觀研究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한동안 찾아보기 어렵다가, 70년대 후반 및 80년대에 들어 약간의 활기를 띠면서 5-6편의 經驗的 研究가 발표되었다. 그 중 가장 先驅的이며, 體系的인 研究는 김진국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 地域偏見研究이다. 여기서는 김진국의 연구에 局限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의 초기연구는 地域感情의 問題를 地域人의 性格과 관계된 固定觀念의 側面에서 接近하고 있으며, 그의 1977년도 연구에 나타난 지역편견을 3개의 지역에 한정해서 例示的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사람은 사교적, 타산적, 이기적; 경상도 사람은 시끄럽고, 의리있으며, 결단력이 있고; 전라도 사람은 생활력이 강하고 타산적이며, 야심적이다."

이 보다 7년뒤인 1984년에 김진국은 "地域民 간의 偏見的 態度"에 대한 研究에서, 評價的 次元의 性格記述 形容詞를 사용해, 각 지방인의 自道 및 他道에 대한 態度를 測定하였다. 이 연구와 그의 1987년도 연구(領·湖南大學生의 相互間 差異知覺 研究)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문제시되는 지역감정은 사실상 각 지역간에 共通的으로 存在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湖南과 非湖南間의 問題라는 것이다. 그의 글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地域感情의 存在樣式은 최소한 固定觀念이라는 側面에서, 領·湖南間의 問題가 아니라, 湖南과 나머지 地域間의 問題임을 暗示한다(김진국, 1987)."

만일 김진국의 이러한 見解가 옳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示唆點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地域人들의 他道人에 대한 地域偏見의 問題는, 1980년도 중반에 들어서면서, 政治的 構造와 連繫된 感情的 葛藤의 對立構造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地域人간의 偏見은 각도인의 특성을 당사자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立場에서 "경상도인은 어떠어떠 하다더라"는 식의 기술적 조사의 性格을 띠었으나, 80년대초를 전후해서는 "경상도인은 상대도하기싫다"던가, "전라도인은 대하기가 무섭다"는 식의 評價感情이 짙게 介入된 當事者 偏見으로 變質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地域偏見의 對象構造가 70년대 이전에는 分散性(예컨대, "A"도가 여러개의 他道에 대해 偏見을 가졌음)을 나타내었으나, 80년대 초를 전후해서는 湖南 대 非湖南이라는 二分法的 集中性("A"도가 單數의 他地域에 대해 偏見을 갖는)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對象 單一化 構造에서의 편견은 대상이 여럿이었을 때보다 편견과 관련된 認知的 感情이 特定對

象集團에 촛점화되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偏見의 構造가 組織化, 複雜化, 深度化되며, 이와 관련된 排他感情의 强度가 强化될 可能性이 커진다고 하겠다.

지역감정의 문제가 이처럼 二分的으로 對立化되어가는 傾向은 김진국의 1984년도 연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호남사람이 비호남인으로부터 好意的 特性反應은 적게, 비호의적 특성반응은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여기서 더욱 注目을 끄는 結果는, 湖南人이 그 어느도 보다도 他道出身을 더욱 否定的으로 評價하고 있는 점이다. 동시에 호남인들은 自身의 出身道人에 대한 評價에서 自己道出身을 그 어느도의 경우보다 더욱 좋게 評價하는 反應을 보이고 있다. 위의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호남 대 비호남간의 상대에 대한 편견은 어느 한쪽에서의 一方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兩方的임을 示唆한다.

그러나 위의 연구보다 3년뒤인 1987년도에, 領·湖南의 大學生을 對象으로 한 領·湖南間의 固定觀念을 比較한 연구에서 보면, 嶺南人의 湖南人에 대한 態度가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태도보다 훨씬 否定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앞서 紹介한 그의 1984년도 硏究結果에 부분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84년도 연구에서는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偏見이 영남인의 호남인에 대한 그것보다 더 강했으나, 1987년도 硏究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두 연구결과간의 나타난 또 하나의 차이점은, 1984년도 연구에서는 湖南人이 自己集團(즉 湖南人)에 대한 評價에서 다른 어느 집단의 자기집단평가보다 월등히 好意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1987년도 연구에서는 湖南人의 自己集團에 대한 評價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호남인의 자기평가가 他地域人인 嶺南人이 湖南人을 보는 評價와 비슷하게 否定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와는 별도로, 1987년도 연구에서 나타난 또 다른 特徵的 結果들로는 먼저, 이 두지역 사람들이 서로간의 葛藤에 대해 解析하는 方式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영남인은 호남인의 否定的 特性으로 葛藤의 原因을 歸屬시키는가하면, 湖南人은 嶺南人을 탓하기 보다는 政治·經濟·社會的 差別 즉 社會의 構造的 特性때문에 葛藤이 일어나는 것으로 知覺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해석에 대한 또 다른 뒷받침은 앞에서 제시한 김진국의 연구결과에서 間接的으로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김진국의 1984년도 연구에서 호남인들은 여타의 어느 도 보다도 自己道人의 評價에서 월등히 높게 好意的인, 어떤 면에서는 非現實的이라할 만큼 好意的으로 自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인들이 타도인보다도 현실성이 더 缺如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前提를 받아들인다면, 호남인들이 자신들을 非現實的이라고 할 정도로 높게 評價하게 된데는 그럴만한 社會心理的 要因이 作用했다고 推論해 볼 수 있다.

領·湖南 住民이 느끼는 바와 같은 排他的 競爭狀況에서 自己集團內 結束力은 增加되고, 동시에 자기 집단에 대한 愛着心은 커진다. 또한 자기집단에 대한 애착심이 크면 클수록 自己集團에 대한 好意的 評價傾向은 增加된다는 社會心理的 過程을 받아들일 때, 호남인의 자기평가

가 과도하게 好意的으로 偏頗된 이유는 湖南人의 自己集團에 대한 結束力과 愛着이 他集團에 비해 큼을 示唆한다.

호남인이 자기집단에 대한 結束力과 愛着이 커지게 된 이유를 최근의 政治·社會的 狀況에 국한시켜 분석해보면, 무엇보다도 호남인들이 實在的으로 가지고 있는 被害意識과 밀접히 關聯된다 하겠다.

1987년도 연구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嶺南이나 湖南 공히 자기가 속한 지역인의 結束力이 약한것으로 知覺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진국은 이러한 결과를 놓고, 두 집단이 서로 威脅的으로 知覺하고 있는 것으로 解析하고 있다.

여기서 단결력이 부족하다는 영·호남인의 지각이나, 두 지역인이 서로에 대해 威脅的으로 느끼고 있다는 연구자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地域偏見이 오늘날 왜, 어떻게해서 惡化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端緖가 될 수 있다. 우선 영·호남 주민이 서로 자신들의 團結力 부족을, 그리고 相對에 대해 威脅을 느낀다 함은 영·호남간의 관계를 이들 주민들은 排他的 競爭狀況으로 知覺하고 있음을 示唆한다.

또한 偏見과 관련된 社會心理學的 理論에 대한 앞서의 고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타적 경쟁상황에서는 相對에 대한 偏見이 싹트고, 기존의 偏見은 더욱 惡化되는 傾向을 보인다. 이러한 視角에서 眺望해 볼 때, 영·호남간의 感情葛藤은 이 지역인들이 원래 옛부터 가져왔던 固定觀念이나 偏見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기 보다는, 이 두 지역인들에게 排他的 競爭心理를 유발한 최근의 政治構造와 政治·社會的 事件때문에 조성된 內·外集團性 集團感情임을 暗示한다. 결국 호남인들이 被害意識을 강하게 느낀다함은 호남인들 밖에 있는 어느 外集團이 호남인과 排他的 競爭關係에 있음을 뜻하며, 그러한 외집단은 경상도인을 포함한 非湖南人 또는 體制內의 政治集團으로 호남인들은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호남인들은 자신과 다른(어떤 면에서든) 비호남인집단과의 배타적 경쟁에서 被害者의 認識을 갖게되었고, 여기서 自己集團에 대한 結束力과 愛着이 强化되어 자기집단에 대해서는 好意的으로 評價하려는 경향이, 반대로 外集團인 비호남인 또는 체제내집단에 대해서는 非好意的 態度를 가지려는 傾向이 타지역인에 비해 강하게 나타는 것이라고 解析해 볼 수 있다.

물론 김진국의 1987년도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의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1984년도 硏究結果와 두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는, 영남인의 호남인에 대한 態度가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태도보다 더 否定的이었다는 점. 둘째는, 호남인의 自己集團에 대한 해석도 결국은 排他的 競爭關係와 관련된 社會心理의 理論的 視角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基本構造는 同一하다고 思料된다.

먼저 1987년도 연구에서 영남인의 호남인에 대한 態度가 왜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태도보다 더욱 否定的인 것으로 나타났느냐의 문제부터 檢討해 보자. 여기에서는 領·湖南間의 關係를 時間的 次元에서 力動的으로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

김진국의 1987년도 연구가 이루어진 時期는 공교롭게도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라는 점에서, 이 두지역간의 地域感情이 그 어느때 보다도 尖銳化되었던 시기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時期에 경상도인에게는, 적어도 地域間의 競爭이라는 次元에서는, 전라도인이 威脅의 對象이었으며(이점은 김진국도 지적하고 있음), 과거에 받아보지 못했던 강한 전라도 후보자의 挑戰은 경상도인에게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욱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心理狀況을 조성했으리라는 解析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보여 주었던 호남인의 강한 結束은 地域集團意識과 連繫되어 호남에 대한 排他的 態度를 上昇的으로 促進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두번째로 1987년도 조사에서 호남인의 自己集團에 대한 評價가 1984년도 조사결과와는 정반대로 非好意的 方向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을 檢討해 보자. 이러한 차이점도 1987년도의 調査가 이루어진 시기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진 시기라는 특이한 狀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1987년도 조사는 대통령 선거가 湖南의 象徵인 김대중후보의 敗北로 끝난 직후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호남인들의 결속된 노력이 失敗로 끝난 직후에 나타나는 自己批判의 狀況心理가 反動的 自己卑下反應을 誘發했으며, 그 결과 호남인의 자기집단평가가 否定的으로 나타난 것으로 解析해 볼 수 있다.

마. 固定觀念과 地域感情間의 關係에 대한 實驗

固定觀念과 偏見은 特定集團의 共通的 特性에 대해 他集團이 가지고 있는 세마를 말하며, 이때 固定觀念의 內容은 보통 特定集團의 構成員들이 共有하는 것으로 믿는 性格特性들로 構成되는 것이 보통이다. 동시에 고정관념이 일반의 관념과 區分되는 特性의 하나는, 固定觀念이 일단 形成되면, 그것이 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이란 槪念이 갖는 特性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의 地域感情 問題를 固定觀念의 視角에서 分析해 보자.

앞장에서 소개된 김진국(1987)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地域感情은 호남대 비호남의 對立樣相으로 나타난다고 指摘한 바 있다. 이러한 二分的 對立感情을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說明하기 위해서는 호남인과 비호남인의 성격특성이 어떻게 區分되는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선 湖南人에 대한 性格特性 固定觀念은 제쳐두고, 비호남인의 성격특성이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어느 누구도 湖南을 제외한 나머지 地域人들을 총체적으로 指稱하는 非湖南人의 性格特性이 어떠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곧 호남 대 비호남간의 地域感情이 性格特性에 대한 固定觀念과 直接的 關聯이 없음을 示唆한다.

固定觀念이 地域感情에 影響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필자의 견해를 檢討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實驗을 실시하였다. 이 세 실험의 기본적 골격은, 서울인과 호남인에 대한 固定觀念 記述語를 "갑"과 "을"이라는 사람의 性格特性으로 사용하여, 피험자들로 하여금 이 두사람에 대한 相對的 好意度를 比較判斷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사용한 固定觀念 記述語는 김진국의 1977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서울 사람의

경우"사교적이다, 타산적이다, 이기적이다"이었으며, 호남인의 경우"생활력이 강하다, 타산적이다, 야심적이다"이었다. 相對的 好意度는 이 두지역에 대한 固定觀念 內容에 一致하는 性格特性을 가진 "갑"과 "을"중 어느 누구를 친구로 選擇하겠는가를 물어보는 방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실험 1에서는 바로 위에서 서술한 內容을 아래의 질문지 형태로 構成하여 3명의 C대학생들에게 調査를 실시하였다.

〈실험1의 질문지〉

아래에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의 성격특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두사람 모두 남에게 호감을 주는 성격을 가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이 두사람중 어느 한 사람을 친구나 동료로 맞이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갑"의 성격	"을"의 성격
• 사교적이다.	• 생활력이 강하다.
• 타산적이다.	• 타산적이다.
• 이기적이다.	• 야심적이다.

응답(V표 하시오)

( )"을"을 택하겠다.

( )"갑"을 택하겠다.

실험 2와 3은 실험 1의 처치에 "地域"이라는 變因을 첨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만 실험 1과 다르다. 實驗 2와 3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실험 2에서는 서울사람에 대한 固定觀念 性格特性으로 하고 있는 "갑"의 出身地域을 서울로, 湖南人에 대한 固定觀念을 性格特性으로 하고 있는 "을"의 出身地域을 호남의 한 도시인 전주로 표기해 주고 好感을 測定하였다. 그러나 실험 3에서는 固定觀念을 內容과 出身地域을 서로 반대로 엇갈리게 하여 提示하였다. 즉 갑의 출신지역을 전주로, 을의 출신지역을 서울로 표기하여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를 表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실험 1, 2, 3의 설계

처치변인 / 실 험	성격특성	성격특성+고정관념일치 출신지역	성격특성+고정관념불일치 출신지역
실험 1	V		
실험 2		V	
실험 3			V

질문지 속에 出身地域에 대한 刺戟情報는 "갑"과 "을"의 개인적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나이 및 학교에 대한 기타 정보와 더불어 제시하였다. 實驗 2와 3에 참여한 피험자 수는 각각 29명과 31명이었다. 실험 1, 2, 3의 結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실험 1, 2, 3조건에서의 친구선택

실험조건 \ 친구선택	"갑"을 친구로 삼겠다	"을"을 친구로 삼겠다
실험 1	4(13%)	27(87%)
실험 2	13(45%)	16(55%)
실험 3	3(10%)	28(80%)

위의 표에서 실험 1의 결과를 보면, 湖南 固定觀念的 性格特性을 가진 "을"이 서울 고정관념적 성격특성을 가진 "갑"보다 월등히 높은 친구 피선택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固定觀念 內容面에서 볼 때 서울인보다 호남인이 더욱 好感을 誘發하는 또는 덜 비호감을 유발하는 性格特性을 가졌음을 뜻한다. 이같은 결과는 또한 "호남인의 성격이 어떠어떠 하다고 일반인들이 믿고있어서 호남인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식의 固定觀念的 說明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間接的으로 示唆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固定觀念的 性格特性과, 이에 一致하는 出身地域情報를 提供한 실험 2의 결과를 출신지역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실험 1의 결과와 比較해 볼 때 큰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 즉 실험 1에서는 서울 固定觀念的 性格特性을 가진 "갑"의 피선택율이 13%에 불과했으나, "갑"의 出身地域 즉 서울출신이라는 情報가 부가될 때 "갑"의 피선택율은 45%로 增加했다. 이를 "을"의 立場에서 다시 검토해 보면, 出身地域 情報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을"의 피선택율은 87%이었으나, "을"의 출신지역이 전주라는 情報가 첨가될 때 "을"의 피선택율은 55%로 激減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들의 친구선택이 出身地域 情報에 의해 크게 影響받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解析해 볼 수 있다.

出身地域 情報가 친구로서의 피선택에 미치는 影響을 재확인해보기 위해 실험 3에서는 固定觀念的 性格特性情報와 出身地域을 정반대로 쌍지워 刺戟情報로 제공해 보았다. 그 결과는 실험 2의 결과에 대한 解析을 그대로 支持해 주는 方向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 2에서는 서울 출신의 "갑"이 친구로 선택된 비율이 45%이었으나, 실험 3에서 "갑"이 전주출신으로 提示되었을 때 "갑"의 피선택율은 10%로 激減하였다. 이 비율은 出身地域 情報가 제시되지 않은 실험 1에서의 "갑"의 피선택율인 13%보다도 3%정도 적은 것이다. 결국 실험 3의 결과는 결힘 2의 결과에 대한 解析, 즉 出身地域이 친구로서 選擇되는데 決定的 影響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한번 支持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위의 실험 1, 2, 3의 결과에 대한 解析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개의 두드러진

地域固定觀念(예컨대, 서울은 사교적이고, 타산적이고, 이기적이며, 호남은 생활력이 강하고, 타산적이며, 야심적이다)만 가지고 對人 好意度를 測定했을 때, 서울보다 호남의 固定觀念 特性이 더욱 좋은 對人好感을 誘發한다. 이러한 결과는 호남인에 대한 固定觀念 內容이 否定的인 내용의 것으로 形成되어졌기 때문에 湖南人에 대한 非好意的 感情이 생기게 되었다는 일부 사회인의 視角이나, 일부 心理學者들의 見解(즉 地域感情이나 偏見에 대한 心理構造的 接近의 基本假定)와 一致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對人好感은 對人評價 對象者의 出身地域이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크게 影響을 받는다. 특히 湖南地域이라는 出身情報가 否定的 評價方向의 性格特性과 聯合될 때 더욱 否定的 方向으로 對人好感에 影響을 미친다.

위의 實驗結果와 分析을 놓고, 固定觀念이 地域感情에 미치는 影響과, 偏見의 形成背景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固定觀念이 地域感情에 影響을 미친다는 基本 前提는 부정하기 어려우나, 地域感情은 固定觀念이외의 다른 要因에 의해 더 큰 影響을 받는 것으로 思料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固定觀念이 地域感情을 결정짓기 보다는, 地域感情이 固定觀念을 助成하는데 寄與한다는 反對方向의 先後關係가 더욱 타당한 說明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排他的 競爭關係, 또는 內-外集團 區分에 따른 排他的 範疇化등과 같은 社會心理的 過程에서 나타나는 否定的 感情이 相對集團에 대한 否定的 固定觀念을 助成하는데 결정적으로 寄與하는 것으로 推測된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資料는 위의 실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對人好感이 出身地域이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크게 影響을 받는다는 결과는 곧 사람들이 內-外集團 範疇에 따라 好感 또는 非好感 反應을 나타낸다는 것을 暗示한다. 이를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湖南人이 어떤 性格特性을 원래 가지고 있어서 싫어하게 되었다기 보다는, 호남인이 어떤 이유로든 싫어졌기 때문에, 湖南人의 性格特性이 나쁜 것으로 知覺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김진국의 1987년도 연구에서, 地域感情의 문제는 湖南對 非湖南의 葛藤으로 축약할 수 있다고 그는 피력하였다. 만일 그의 이러한 주장이 맞다면, 地域感情의 問題는 固定觀念의 問題가 아니라, 內-外集團 範疇化에서 나타난 문제라는 心證을 낳게한다. 왜냐하면, 호남대 비호남이란 말은 固定觀念에 따른 對稱이 아니라, 地域에 따른 對稱이기 때문이다. 즉, 호남사람이냐 또는 호남사람이 아니냐라는 호남대 비호남의 二分法的 範疇 區分은 최근의 우리의 政治構圖나 社會的 現狀에서 不知不識間에 暗示的으로 示唆받아온 區分方式이기도 하다.

固定觀念이 원래부터 固定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되게 자리잡고 있다기 보다는 時代狀況的으로 助成되는 社會心理的 過程의 影響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은 고정관념적 세마가 時代的으로 變한다는 점에서도 示唆받는다. 그 한 예로 호남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安定的이며, 一貫性이 있는가를 檢討해 보자. 고려때부터 전해온다는 八道忖評式 固定觀念에 따르면, 전라도인은 "風前細柳"로 기술되어져 왔으며, 1959년 이진숙의 先入觀 硏究에서도 전라도인이 "영리하고 간사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7년도 김진국의 地域的 偏見硏究에서

는 전라도인이 "생활력이 강하고, 타산적이고, 야심적인"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전라도인이 "영리하고 간사하다"는 것과 "생활력이 강하고 타산적이며 야심적"이라는 것간에는 理論的 一貫性이나 心理的 連繫性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연구자가 同一地域에 대한 固定觀念을 測定할 때, 서로 다른 고정관념이 抽出되고 있다는 점은 測定된 固定觀念 세마의 安定性에 대한 疑心을 낳게 한다. 다음에서는 地域偏見 및 地域感情의 增幅에 관계된 社會心理的 過程을 필자의 시각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바. 地域偏見의 增幅에 대한 社會心理學的 分析

地域偏見에 대한 社會心理學的 分析에 선행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前提를 提起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은 지역에 따른 集團區分을 하지도 않고, 타지역에 대한 偏見도 거의 없거나 있어도 아주 무시할 정도로 微弱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에게는 地域偏見이 있다(김진국의 1989년도 연구에서처럼). 이렇게 지역편견이 대학에 들어와 갑자기 생기된 逕渭와 理由는 이들이 타지역인과의 직접적 接觸課程에서 얻게되는 실제적 經驗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大衆媒體를 통해 地域範疇化로 기술되는 각종 政治, 經濟, 社會的 事件 報道 및 각종의 地域偏見 助長的 情報에 의해, 그리고 더불어 가족을 포함한 주변성인들의 地域偏見 助長的 對話를 통해 間接的, 漸進的으로 構築된 것일 것이다.

둘째, 일반인의 日常的 對話水準에서 表現되거나 地域感情이나 偏見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성질의 地域固定觀念은 人種的(백인의 흑인에 대한, 독일인의 유태인에 대한, 흑인의 한국인에 대한)偏見과 그 성격이 다를 것이다. 즉, 전자에서는 후자에서와 달리 대상집단의 人性特質에 대한 확고한 세마가 없거나 약하며, 비록 세마가 있다하더라도 타지역인과 個人水準에서 親分을 맺거나 對人相互作用하는 課程에서 직접 활성화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치더라도 辨別的으로, 微溫的으로 미칠 것이다. 그리고 비록 否定的 負荷가 매우 적을 것이다. 地域固定觀念은 따라서 막연한 觀念水準의 세마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 세마는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교수가 정치인에게, 캘리포니아인이 텍사스인에게 갖는 고정관념 정도의 다른 집단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그냥 막연한 관념"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集團水準의 競爭狀況에서는 觀念水準의 固定觀念세마가 現在化, 感情負荷化 되기 쉽다.

세째, 현재, 특히 최근들어 尖銳化된 地域感情은 제3공화국이래 현저히 活性化, 敏感化된 한국인의 政治的 關心과 더불어 이 시기에 地域과 政治集團이 偶然的으로 聯動되어 集中的이며 社會事件化된 形態로 전개된 각종 사건(특히 選擧와 政治狀況등)과 최근들어 민감한 社會的 輿論으로 浮刻되기 시작한 現狀에 의해 集團 心理的으로 助長된 부분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社會心理的 側面에서의 分析은 地域偏見의 增幅現狀의 理解

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視角은 地域偏見이나 固定觀念이 이미 머리속에 박혀있어서 地域感情과 葛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 즉, 韓國의 地域偏見에 대한 旣存의 心理學的 立場이나, 客觀的으로 湖南이 피해를 받아 湖南人이 분개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타지역인이 이에 反撥하는 식의 構造論的 立場 즉 地域偏見에 대한 政治·社會學的 立場과는 크게 구별된다.

여기서는 心理構造나 社會構造와 같은 構造論的 視角보다는 社會心理 課程論的 視角을 分析의 도구로 사용하며, 종래의 心理學者나 政治學者의 合理的 視角 즉 心理的으로 偏見이 있었고 社會構造的으로 矛盾이 있어서 葛藤이 存在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思考에서 탈피하여, 그동안 전개된 각종 社會的 事件과 現狀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地域感情을 자신도 모르는, 터무니없는 心理的 課程을 통해 形成되었는가를 照明하는 非合理的 接近을 시도하고져 한다. 좀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地域感情의 상당부분은 그 발생의 원인을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合理的 思考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묘한 社會心理的 課程을 本 分析에서는 照明해 보고자 한다.

앞서 地域葛藤에 관련된 社會心理學的 接近으로 1) 地域偏見的 接近, 2) 社會的 範疇化 接近, 3) 實際 葛藤的 接近, 4) 欲求挫折-攻擊性 接近, 그리고 5) 個人差的 接近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理論的 視角에서 우리니라의 地域感情 現狀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각 지방인은 타지역(또는 지방)인에 대한 비교적 일정한 形態의 固定觀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그 지역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같은"성질의 비교적 可變性이 적은 "性格"과 같은 特性을 담고 있다(예컨대, 의리가 있다(경상도), 간사하다(서울과 호남), 느리다(충청도)등). 또한 동일한 지방인에 대한 固定觀念의 내용속에는 항상 否定的인 內容과 肯定的인 內容을 동시에 포함하며, 그 부정적 내용의 정도는 지방에 따라 약간의 差異가 있다.

둘째, 그러나 地域固定觀念과 구분하여, 地域偏見과 地域感情의 側面에서 각 지방을 비교해 보면 모든 각 지방이 모든 타지방에 대해 地域感情과 偏見이 있는 것이라기 보다, 두집단으로 크게 대분되어, 對立된 形態의 地域感情과 偏見으로 나타난다. 즉 호남대 비호남간의 地域感情이다.

세째, 우리나라에서의 地域固定觀念과 地域感情간의 關係를 보면 그저 풍자적 의미의 "地域人 固定觀念"이 "地域感情"과 連繫되어 地域固定觀念중 否定的 意味의 固定觀念 內容을 認知水準에서 信念化시키고, 感情水準에서 否定的 方向으로 强化시키고 있다. 또한 고정관념이 지역감정과 연계될 때 旣存의 否定的 固定觀念 內容과 心理的 次元에서 作用하고 있으며, 동시에 "컨텍스트"에 따라 그 評價的 屬性이 肯定的으로 評價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否定的으로 評價될 수 있는 兩面性을 지닌 固定觀念 要素가 否定的 地域感情과 連繫될 때 부정적 방향의 의미로 解析되어 지는 傾向을 보인다.

네째, 위의 세번째 관점에서 보면, 비호남인의 호남인에 대한 否定的 固定觀念은 비호남인의 호남인에 대한 否定的 地域感情에 의해 信念的으로 强化되고, 感情的으로 負荷되었으며, 認知的으로 否定的 固定觀念 內容이 豊富化되었으며 解析的으로 보면 中性的 意味의 固定觀念 內容이 否定的 傾向에서 해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思料된다.

다섯째, 그러면 호남인에 대한 비호남인의 부정적 지역감정은 왜 생겼을까? 이에 대한 推論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社會的 範疇化의 接近에서 해석해 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政治·社會的 現狀 및 過程에서 호남인에 대한 範疇化가 그 동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았음을 들 수 있다. 다시말해 메스컴의 事件報道에서, 湖南이라는 範疇나 呼稱을 直接, 間接으로 사용해서 표현되는 事件內容이 그 어느 다른 지역보다 特出하고 많았고, 또한 독자에게 주어지는 刺戟 强度도 他道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했음을 否認하기 어렵다.

이러한 많은 頻度와 높은 强度의 湖南의 돌출적 範疇化가 많았고, 質的으로 강한 受容衝擊을 주는 湖南과 連繫된 각종 政治·社會的 事件과 現狀에 결과된 측면도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호남인간의 內的 團合性이 他地方에 보여짐으로써 上昇的으로 나타난 現象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야당의 상징인 평민당과 김○○총재가 호남인의 象徵(Symbol)으로 정착된 현실에서, 호남인은 일반 국민의 觀念속에서 "평민당 집단"으로 範疇化되었으며, 평민당의 政治, 社會的 屬性을 호남인이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推定하는 心理的 誤謬가 일반 국민의 마음속에서 생겨났다.

2) 地域感情의 問題를 다시 實際 葛藤的 接近에서 眺望해 볼 때, 일반 주민의 個人的 理解關係의 立場에서 호남인과 비호남인간의 直接的 葛藤의 素因은 호남을 제외한 여러 지역인간의 葛藤素因보다 더욱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政治集團, 地域開發對象으로서의 호남지역과 기타지역간의 갈등소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政治的 側面에서 보면, 호남인이 主軸을 이루는 평민당과 경상도인이 主軸을 이루는 기타정당들(예컨대, 과거의 민주당이나 오늘의 민자당)간에는 政治權力과 執權이란 次元에서 항상 제로-썸 게임 形態의 競爭을 해왔다.

기실 호남과 경상도인의 다수가 각기 동일시하는 政黨간의 이러한 競爭과 葛藤은 이 두지역 주민간의 個人的 理解關係가 얽힌 경쟁이나 갈등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地域性과 政黨이 교묘하게 連繫된 韓國의 政治現實에서, 湖南과 嶺南의 地域人들은 政治政黨의 範疇와 政黨間의 競爭과 葛藤을 地域間의 競爭과 葛藤으로 知覺하는 競爭對象選擇 誤謬를 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政黨間의 感情葛藤이 심할수록 嶺·湖南의 感情葛藤은 이에 비례해서 커졌고, 이와 관련된 호남지역인의 정당동일시가 크고, 호남지역인간의 凝集力이 강할수록 영남지역인간의 정당동일시와 지역인간의 內的 凝集力이 커졌다.

여기서 호남인들의 自體 凝集力이 커진것은 호남인들의 동일시 정당이 제3공화국이래 被害的 立場에 서 있었고, 이러한 政黨次元의 被害意識이 자신들의 피해의식으로 轉換되는 社會心

理的 過程과 더불어, 또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각종의 피해를 호남인들이 認識하면서, 이것이 전자의 동일시 피해의식과 겹쳐 同病相憐의 集團意識이 다른지역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解析해 볼 수 있다.

또한 嶺·湖南의 지역경쟁이 尖銳化되고, 內的 凝集力이 커질 때, 政治的 態度는 물론 感情面에서의 集團內 同質性과 同質性認識은 커지고, 외집단과의 異質性과 이질성에 대한 知覺은 그 만큼 커진다. 이러한 사회 심리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政治的 態度 및 感情面에서 호남인과 영남인들은 각기 자기 내부집단에서의 同質性은 물론 同質性知覺이 同一地域 住民間에 존재하는 실제의 동질성보다 더 크게 지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競爭對象集團에 대해서는 두 집단 태도상의 이질성과 感情的 敵對感은 커져갔으며, 실제의 이질성보다 더 큰 이질성을 느끼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한가지 言及해야할 것은 範疇化要因과 競爭要因의 上昇的 相互作用 問題이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영·호남의 돌출범주화가 嶺·湖南간의 競爭狀況과 겹칠때, 서로 集團的 同質性에 대한 知覺보다, 集團的 異質性에 대한 知覺이 현저화되고, 또한 실제로 각 집단이 동일시하는 政治的 政黨의 思考와 態度 方向으로 變化가 促進되어 異質性이 增進된다. 또한 이러한 실제적 이질화의 확대는 서로 상이성 지각을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집단간 範疇的 區分化를 促進시키는 逆換的 相乘作用을 가져온다.

특히, 이처럼 두 지역이 현저히 범주화되고, 제로-썸 게임의 경쟁상황에서는 個人의 個性이 集團意識속에 沒入되어, 집단 구성원이 각기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合理的 行動보다는 集團意識과 集團感情에 沒入된 群衆的 性格의 行爲가 發現되기 쉽다.

嶺·湖南의 競爭과 관련해서 상대에 대한 否定的 固定觀念을 助長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또 하나의 社會心理的 過程은 이 두지역의 상징인물인 김○○씨와 김××씨간에 있었던 競爭狀況의 특이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야당인으로서의 김○○씨와 김××씨가 협동해서 집권당의 영수인 노○○씨와 政治的 鬪爭을 하던 과정은 마치 죄수갈등(Prisoner's dilemer)상황에 거의 들어맞는다. 즉 이 두 野黨 領袖는 서로 協同하면서 競爭해야하는 狀況이었으며, 이 두 사람은 동시에 집권통치자인 노○○씨와도 어느 정도의 협동과 투쟁을 자신의 理解狀況에 맞추어 調節해 나아가야 하는 狀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씨와 김××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背信的 行動을 하지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호의 배신적 행동은 결국 이 두사람을 동일시하는 嶺·湖南人間의 背信으로 일반화하고 錯覺하는 飛躍의 誤謬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3) 地域感情의 問題를 다시 欲求挫折-攻擊性接近의 視角에서 眺望해 보면, 호남인이 그 어느 지역인보다 欲求挫折이 컸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高興化(1989)의 地域感情에 대한 보고서에서 보면, 호남인은 經濟, 地域發展, 政府(군인, 사법부포함)의 要職人事등에서, 특히 영남과 비교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指摘하고 있다. 이러한 호남인에 대한 差別的 現狀은 호남인의 欲求挫折을 誘發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湖南人들은 이러한 欲求挫折에 따른

敵對感의 표현 대상을 일차적으로는 政治體制에 두면서, 동시에 대통령선거에서와 같이 尖銳化된 지역간 경쟁상황에서는 상대집단의 중심인물이 영남인이었다는 점에서, 영남인 일반에 敵對感을 一般化하는 複合的 感情反應 狀態를 노출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특기할 사실은 호남인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앞서의 김진국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영남인보다는 政治體制에 귀인시키고 있는 반면, 오히려 영남인(대학생이었음)은 호남인의 피해를 호남인의 特性으로 돌리는 犧牲者 卑下(victim derogation)方向의 귀인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흔히 犧牲者 卑下現象은 犧牲者를 돕는 일에 자신들이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또는 相對에 대한 競爭心理가 강할 때, 자신을 防禦하려는 심리기제가 작용하여 나타나기 쉬운 안이한 自己 正當化 現狀이다.

그렇다면 경상도인의 호남인 비하는 두 지역간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호남인이 피해를 받았고, 그렇다고 그 피해를 解消시키는데 경상도인들이 할 수 있는 役割은 별로 찾기힘든 상황에서, 자기집단을 正當化 시키는 심리기제가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被害者 卑下現狀은 경상도인만이 아닌 여타의 비호남권 지역인들의 호남인에 대한 偏見을 助長하는 가장 중요한 社會心理的 過程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湖南人들이 "우리는 피해자"라고 말하면 말할 수록, 호남인에 대한 비호남인의 생각은 더욱 否定的 方向으로 助長될 수 있음을 示唆한다. 결국 호남인은 실제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심리적 피해를 더 받는 2중적 피해자가 된 셈이다. 이러한 2중적 피해속에서, 호남인들중 自己 反省的 性向이 강한 일부의 호남학생과 지식인들은 이러한 호남인 偏見의 원인을 스스로 자기 지역인에게 귀인시키는, 즉 他人의 自身에 대한 卑下가 自己 自身의 自己卑下로 전환되는 호남인 스스로의 自己卑下現狀을 낳기도 한다(김진국의 1987년도 연구참조). 이러한 호남인의 호남인비하의 보다 깊은 心理的 基底속에는 스스로 약점을 있다고 自認함으로써 또는 약점이 없는데도 약점이 있다고 자인 함으로써, 자신을 刺戟하고 이를 動機로 해서 자신을 더 낫게 만들어가려는 자기 부정적 예언(self-defeating prophecy)의 期待心理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個人差的 接近의 視角에서 地域感情問題를 검토해 보면, 호남인에 대한 偏見은 프로이트의 精神逆動的 過程에서 증폭된 현상으로 眺望할 수 있다. 개인차적 접근의 중심이론인 權威主義的 性格의 理論에서 지역감정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비호남인들이 오늘의 韓國 政治現狀에서 體驗하는 無意識的 不滿足과 欲求挫折의 原因을 소수집단이며, 공격할때 반격의 가능성이 적으며, 동시에 다른 집단과 잘 구분되는 제삼자 집단인 호남인에게 돌려버리는 無意識的 心理的 過程에서 眺望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欲求不滿과 湖南人과는 無關하다.

政治問題와 관련하여 韓國人의 不幸感과 被害意識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과 피해감을 갖게 만든 사람이나 집단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客觀的이며, 社會的으로 合意되는 분명한 對象을 찾지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의 權威主義的 사람(範疇化와 固定觀念的

思考를 잘하고, 因習追從的이며, 權力에 대한 關心이 크고, 權威에 服從을 잘하고, 處罰中心的인 사람을 일컬음)들은 그 原因을 범주화가 잘되는 소수집단(湖南대 非湖南으로 대비할 때)에게 돌리며, 결과적으로 湖南人에 대한 偏見을 强化시킬 可能性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호남인은 일부의 권위주의적 비호남인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양화(scapegoating)되고, 이들의 이러한 偏見은 다수의 공통된 편견인양 僞裝되고 流布되어, 호남인에 대한 편견을 學習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 위에서 湖南人에 대한 固定觀念과 地域感情이 어떠한 社會心理的 過程을 통한 非合理的인 認知-感情的 誤謬課程을 통해 形成될 수 있는 가를 檢討해 보았다. 본 고의 시각에서는 地域感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기존의 시각에 對稱해서, 合理的 視角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며, 또 일어날 수도 없는, 不合理한 社會心理的 課程을 推論的으로 分析해 보았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입장에서 보면, 地域偏見에 대한 心理學的 硏究의 主流인 地域固定觀念 硏究는 이러한 연구가 지역고정관념을 찾아내는데 성공하는 만큼, 그리고 그러한 연구가 많고, 또 사회에 알려지는 만큼, 固定觀念은 문자 그대로 변하기 어려운, 지역인의 고정된 人性特性으로 우리사회에 認識시키고 信念化시키는데 寄與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고에서의 분석을 요약하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논의되는 地域偏見은 사실상 타지역인의 인성에 대한 강한 信念水準의 固定觀念的 세마라기 보다는 地域人의 特性을 커리커쳐 형태로 묘사한 諷刺的 記述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政治와 地域의 連繫가 地域感情을 誘發시켜 地域固定觀念을 地域偏見과 地域葛藤의 形態로 歪曲, 擴大, 感情化시켰으며 地域範疇內 政治·社會的 態度와 感情의 同質化와 地域範疇間 政治·社會的 態度의 異質化 現狀을 助長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고정관념과 지역감정의 연계화와 지역감정의 악화현상을 사회심리의 제측면 즉, 범주화, 경쟁, 희생양화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地域感情의 解消에 생각을 돌려보면, 크게 實際的 變化接近과 社會心理的 變化接近으로 대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실제적 접근에서는 무엇보다도 湖南人의 被害意識을 源泉的으로 가져오게 만들었던 湖南差別을 政策的 制度的으로 防止하고, 또 過去의 被害를 回復시켜주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嶺·湖南의 대립처럼 僞裝連繫된 政黨間 葛藤과, 地域間 葛藤과 連繫되어서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政治的 不滿足의 源泉을 除去시키거나, 政治的 不滿足과 地域偏見과의 連繫를 遮斷시키도록 하는 方案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社會心理的 接近에서는 特定 政治集團과 特定地域을 實際로 또는 心理的으로 連繫시키는 諸般 現實과 要因을 除去하는 일을 政策的, 制度的으로 講究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모든 영남인은 민자당이 아니며, 모든 호남인은 평민당이 아니라는 어떠한 實證도 嶺·湖南의 地域範疇化와 地域感情의 弱化에 寄與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김○○총재가 전라도의 상징이거나 대표도 아니며, 김×× 최고위원과 노○○대통령이 경상도의 상징이거나 대표가 아님을 국민들로부터 실제로 느끼고 體驗하게 만들며 또 이들만이 자기지역을 위해 일하며,

일해야 된다는 일반인의 생각이 틀렸다는 어떠한 實證도 地域感情의 弱化에 寄與할 것이다.

그리고 嶺·湖南人間의 競爭心을 誘發하는 어떠한 政策行爲, 行事, 事件도 防止해야 한다. 예컨대 심지어는 오늘의 지역감정현실에서는 프로야구팀의 緣故地 地域化도 地域 競爭을 誘發하고 地域偏見을 助長하는데 寄與한다고 볼 수 있다.

좀더 積極的 側面에서 영·호남의 地域感情解消를 摸索해 본다면, 嶺·湖南人이 한집단이나 한팀으로되어 타지역의 집합집단(예컨대, 경기도와 강원도의 한집단)과 競爭하는 어떠한 상황도 嶺·湖南의 地域感情 減少에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湖南人과 嶺南人은 스스로 "우리 집단화"하는 現狀을 타지역인에게 보여주는 어떠한 行事나 行動도 타지역인의 자기지역에 대한 偏見을 助長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自制해야 할 것이다. 지역감정의 해소에 대한 具體的인 社會心理的 戰略과 方案은 앞으로 계속 摸索되어야할 다음의 課題로,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참고문헌

고홍화(1989). 자료로 엮은 한국인의 지역감정. 성원사.

김진국(1977). 한국대학생의 지역적 편견연구. 전국대학생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사회과학 분야. 211−240.

김진국(1984). 지역민간의 편견적 태도연구. 학생생활연구. 전남대학교, 16, 103−130.

김진국(1987). 영·호남 대학생의 상호간 차이지각연구. 사회심리학연구, 3(2), 113−147.

안병영(1989).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성원사. 268−272.

이기백(1977). 민족과 국가. 일조각.

조경근(1987). 정치사회의 시각에서 본 영·호남간의 지역감정 실재와 악화 및 해소(재북미 한국인 정치자회 합동학술대회). 한국정치학회, 7, 107−126.

Adorno, T. W., Frenkel-Brunswic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Raw.

Bandura, A. (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Baron, R. A. (1977). *Human aggression.* New York : Plenum.

Bem, S. L. (1981). Gender schema theory : A Cognitive accounting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 356-364.

Berkowitz, L. (1962). *Aggession :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 McGraw-Hill.

Berkowitz, L. (1969). The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revisited. In L. Berkowitz(ED.), *Roots of aggression.* New York : Atherton.

Berkowitz, L. (1978). Whatever happened to the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s, 21,* 691-708.

Berkowitz, L. (1988). Frustrations, appraisals, and aversively stimulated aggression. *Aggression Behavior, 14,* 3-11.

Billig, M., & Tajfel, H. (1973). Social categorization and similarity in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7-52.

Brewer, M. 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group situation :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 307-324.

Buss, A. H. (1971). Aggression pays, In J.L. Singer(Ed.), *The control of aggression and violence.* New York : Academic Press.

Byrne, D., & Wong, T. J. (1962). Racial prejudice,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assumed dissimilarity of attitudes. *Journal of Abnomal and Social Psychology, 65,* 246-253.

Campbell, D. T. (1965). *Ethnocentric and other altruistic motives.* In D, Levine(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Vol. 13).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Davies, J. C. (1972).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In I.K. Feierabend & R. L. Feierabend(Eds.), *Anger, Violence, and politics : Theories and research.*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Feierabend, I. K., & Feierabend, R. L. (1966). Aggression behavior within political violence : cross-national patterns. In H. D. Graham & T.R. Gurr(Eds.), *Violence in america* New York : Bantam.

Feierabend, I. K., & Feierabend, R. L. (1972). Systematic conditions of political aggression : An application of frustration-aggression theory. In I. K. Feierabend, & T. R. Gurr(Eds.). *Anger, violence, and politic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Gaebelein, J. W. (1973). Third-party instigation of aggression : 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389-395.

Hepworth, J. T., & West, S. G. (1988). Lynchings and economy : A time-series reanalysis of Hovland C.I., & Sears, R.R. (1940).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239-247.

Himmelweit, H. (1950). Frustration and aggression : A review of recent experimental work. In T. H. Pear(Ed.). *Psychological fators of peace and war.* London & New York:Hutchinson.

Hovland, C. I. & Sears, R. R.(1940). Minor studies in aggression : Ⅵ. correlation of lynchings with economic indices : *Journal of Personality, 9,* 301-310.

Kulik, J. A., & Brown, R. (1979). Frustration, attribution of blame, and aggres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5,* 183-194.

Luce, R. D., & Raiffa, H.(1957). *Games and decisions.* New York : Wiley.

McCullum, D. M., Harring, K., Gilmore, R., Drenan, S., Chase, J., Insko, D., & Thibaut, J. (1985).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etween groups and between individual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 301-320.

Meindle, J. R., & Lerner, M. J. (1985) Exacerbation of extreme responses to an out-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1-84.

Miller, N. E., & Bugelski, R. (1948). *The influence of frustration imposed by the in-group on attitude expressed toward out-group :* Yale University Press.

Oakes, P. J., & Turner, J. C. (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 Does minimal intergroup discrimination make social identity more positiv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 1064-1071.

Rubin, J. Z., & Brown, B. R. (1975). *The social psychology of bargaining and negotia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Shure, G. H. Meeker, R. J., & Hansford, E. A. (1965). The effectiveness of pacifist strategies in bargaining gam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9,* 106-117.

Sherif, M. (1966). *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 Their social Psychology.*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Sherif, M., & Sherif, C. W. (1979). Research on intergroup relations. In W.C. Attin & S. Worch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lif : Brooks / Cole.

Tajfel, H., & Wilkes, A. L. (1963). Classification and quantitative judgement.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54,* 101-114.

Tajfel, H., Billig, M. G., Bundy, R. P., & Flament, C.(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49-178.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social conflict. In W. Austin & S. Worch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ions.* Monterey, CA : Brooks / Cole.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Cambridge, Engle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jfel, H. (1982). *Social in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Engle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opper, R. (1972). The consequences of investment in the process of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6,* 97-98.

Zillman, D. (1988). Cognition-excitation interdependencies in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14,* 51-64.

韓國心理學會誌：産業 및 組織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90. Vol. 3, NO. 1. 72−97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of Current Interprovincial Antagonism and Hostility in Korea

Sang-Chin Choi, Young-Ho Song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critically the prevailing approaches in academic arena toward understanding antagonisms, or even worse, hostilities as have fermented in and even manifested at interpersonal and societal levels among provincial peoples against each other. Two most popular and distinctive approaches, that is, "social-structural" one as taken predominantly in socialogical circle and "stereotypic" one as espoused exclusively in psychological camp were criticized for both being reying on static, rational model in which considerations on more subtle, interactional, social-psychological processes are perforce dismissed.

Discussions on alternative understandings in terms of social-psychological processes were made with suppotive inferences from phenomenal analysis of the examplay socio-political events which have appeared with functional bearings on inter-provincial antagonism and hostility. Finally, propositions explicating "how-processes" associated with exacerbation and hoped-for reduction in antagonism and hostility were proposed.